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

법령 개정에 따른 새 학년 학교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새 학년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를 개정·보급한다.

이번 설명서는 2026년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과 교육 지원 등의 학생 생활 지도 관련 내용 변경으로 학교 현장의 제도 정비에 의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교육 전반의 체계적 운영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련 학칙 개정 지원 ▲교원·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

생 교육 지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관리 범위를 기존 '휴대전화'에서 '스마트기기'로 확대하고, '웨어블' 기기와 '콘텐츠 제작' 기기를 포함한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과 예외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분리 지도를 교육적 성격을 강화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으로 전환하고, 운영 장소·시간·학습 지원 방법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 학생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장치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되는 법령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적용을 위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 예시를 학교에 보급하고, 8월 말까지 학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는 도교육청 누리집과 학생생활교육 지원 통합 플랫폼인 '온 마음터', '경기교육디지털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민수 기자

김동연, "경기북부 대개발 2040"...'378개 사업'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변하는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생령동 파주 전 시·교육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부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그동안 준비해왔다"며 "2040년까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점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4가지로 나눠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공업지역 물량을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와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최우선 배정해 첨단산업의 기반을 닦고 지방정부 최초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미래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 2호선-고양 연장,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GTX 동두천 연장 등을 통해 북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난달 개소한 포천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중



심으로 경기북부를 K방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2028년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조기 분양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행정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3년 수립된 165개 아젠다로 관리되고 있던 북부발전 계획을 재검토해 2040년까지 7대 핵심과제 3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2034년 개통 목표) ▲핵심 국지도 16개 63.68km, 지방도 20개 87.95km 건설을 추진한다. 철도 분야는 ▲KTX파주/SRT연천

연장 ▲GTX-A-H노선 확충 ▲양주 덕정역정선 등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추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역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일자리·산업기반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국방벤처센터 설립 ▲방산혁신클러스터(우주, 로봇,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고양 일산·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화전·남양주 왕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송민수 기자

안양시, '미래형 드론 인재' 양성 박차



안양시(시장 최태호)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드론 체험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6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드론 활용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 단위 프로젝트로, 안양시는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총 2천만 원(도비 1천만 원 포함)을 투입해 관내 초등학교 약 300명을 대상으로 '드론 축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드론 축구는 탄소 소재 보호 장구로

송민수 기자

평택항, 개항 첫 LNG 급유 성공...친환경 항만 도약 신호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8일 평택국제자동차부두에서 개항 이래 최초로 대형 자동차운반선에 1,290톤(Metric Ton) 규모의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를 성공적으로 급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시범 운영 성공으로 평택항은 본격적인 상업용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기반을 마련하며 국제 항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액화천연가스(LNG) 급유가 주는 의미에 대해 공사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LNG 연료 급유가 가능한 항만은 '규제 대응이 되는 친환경 항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NG 벙커링(선박에 LNG를 연료로 급유하는 사업)은 선박용 벙커C유를 대체하는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표, 부산·울산·로테르담·싱가포르 같은 항만들이 이미 전략적으로 키우는 분야다.

따라서 이번 시범 급유 성공은 평택항도 이 시장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가 된다.

이날 한국LNG벙커링㈜의 급유선 '블루웨일(Blue Whale)'호는 평택항 대표 자동차운반선사인 유코카게리어스㈜의 '레이크 시라사기(Lake Shirasagi)'호에 1,290톤의 LNG를 차질 없이 공급했다.

이번 테스트 운영을 시작으로 유코카게리어스㈜는 급유선 일정을 확보하고 추가 급유 선박이 도입되는 대로 평택항에서 지속해서 친환경 연료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택항은 전체 자동차 항로 8개 서비스 지역 중 5개 노선에 LNG 연료를 공급, 명실상부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항만'으로서의 확실한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앞서 공사는 평택항의 친환경 항만 조성은 물론 빠르게 움직였다. 2025년 11월 유관기관 및 대표 기업들과 '평택항 탄소중립 그린수소 합

자동차 항로 8개 중 5개 노선 LNG 공급 확대 전망



Shirasagi)호에 1,290톤의 LNG를 차질 없이 공급했다.

이번 테스트 운영을 시작으로 유코카게리어스㈜는 급유선 일정을 확보하고 추가 급유 선박이 도입되는 대로 평택항에서 지속해서 친환경 연료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택항은 전체 자동차 항로 8개 서비스 지역 중 5개 노선에 LNG 연료를 공급, 명실상부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항만'으로서의 확실한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앞서 공사는 평택항의 친환경 항만 조성은 물론 빠르게 움직였다. 2025년 11월 유관기관 및 대표 기업들과 '평택항 탄소중립 그린수소 합

만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반시설(인프라)을 다졌고, 벨기에 안트워프-브뤼헤 항만(Port of Antwerp-Bruges)과도 친환경 연료 기반의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공동 구축을 위한 투자의향서(LOI)를 맺은 바 있다.

김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LNG 급유 시범 운영을 통해 평택항이 해운 업계에서 높은 친환경 항만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평택항이 친환경 연료 공급 전환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하남 '직주락' 갖춘 미래형 도시로 비상

하남의 뿌리이자 심장부인 원도심이 주거 중심의 틀을 벗어나 산업, 교육, 문화가 결합된 직주락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남시는 원도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도시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행 환경의 혁신이다. 시는 총 1천억 원 규모의 전선 이중화 로드맵을 가동하고 지난 10일 신장전통시장 주변 전주 철거에 착수했다. 이달 말 가공선로 철거가 마무리되면 보행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신장시장과 신평로 일대에 첨단 IT 기술이 집약된 하수도 약취저감 장치를 설치해 보이지 않는 주거 환경까지 세심하게 관리한다.

교통 및 산업 기반 확충도 구제화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인 가칭 신평역은 원도심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계획보다 북쪽으로 약 340m 이동해 확정됐다. 이는 만남의 광장 환

승센터와의 효율적 연결을 통해 원도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결과다.

시민 체감형 인프라도 대폭 확충됐다. 신장·수산물·석바네 등 주요 전통시장에 커뮤니티센터와 고객지원센터를 마련해 상권 경쟁력을 높였으며, 덕풍스포츠클럽센터와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거점을 가동 중이다. 하남 최초의 종합병원인 연세하남병원도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며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 경쟁력의 성장도 눈부시다. 남한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돼 5년간 15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며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26학년도 주요 대학 및 의·약학 계열 합격자 수는 4년 전 대비 약 3배인 387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남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추진과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등은 교육 주권 확보와 복지 실현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송민수 기자

농협 경기본부, '경기도 농·특산물 홍보관' 개관 경기 인삼 알리며

농협 경기본부는 경기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해 농협 경기본부 1층에 '경기도 농·특산물 홍보관'을 조성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홍보관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에게 경기 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개관식에서는 경기 인삼의 상징성을 담은 '천경삼 대형 인삼 주가' 함께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천경삼 대형 인삼주는 경기 인삼의 역사와 명품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전시물로, 경기도 4개 인삼농협이 함께 협력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농협 경기본부 임범식 본부장은 "경기도 농·특산물 홍보관이 경기 농

인삼 등 지역 농산물 홍보 거점 마련...'천경삼 대형 인삼주' 전시



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거점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천경삼 대형 인삼주 전시는 경기 인삼의 가치와 전통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농·특산물 홍보관은 앞으로 다양한 전시와 홍보 활동을 통해 경기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파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 업소 모집

파주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60개소가 대상이다.

신청 업소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신규 업소 및 기존에 자문·상담을 받지 않은 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지정판 제공 ▲청소비 지원 ▲위생관리 물품 지원 ▲배달 앱 홍보 ▲3년간 출입·검사 면제(단, 민원 제기 및 식중독 발생 시 제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의정부시, 부동산공시가격 의견제출 기간 운영

의정부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안)에 대해 4월6일까지 가격역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 1만1589호는 의정부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과 인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안양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경보시설 등 일제 점검

안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발생에 대비해 31일까지 재난 예·경보시설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음성통보시설 ▲기상관측장비 ▲재난CCTV ▲재해 문자 전광판 등 총 22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작동 상태 및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및 오작동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연 재난 발생 시 예·경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경기 살리기 톨큰 세일...'최대 20% 환급'

과천시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톨큰 세일' 행사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이 지정된 참여 상권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결제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금(액립금)으로 즉시 돌려받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당 혜택 한도는 1일 최대 3만원, 행사 기간 내 총 12만원까지다. 환급액은 결제와 동시에 자동으로 지급되어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혜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왕새일센터 'AI 마케팅 온라인 창업' 교육생 모집

의왕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인공지능 활용 마케팅 및 온라인 창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케팅 사무원 분야 취업과 온라인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 과정으로, 5월11일부터 8월5일까지 주 5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마케팅 실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20여명으로, 신청자 중 별도의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송민수 기자